

내가 올 여름방학 때, 일본에 여행갔을 때의 일이다. 깨끗한 인상의 東京은 JR原宿역 앞의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 신호를 기다리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신호가 바뀌어 건너기 시작할 때 길가에 그냥 버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욱 놀란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까지 흡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한국도 흡연인구가 많아 여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흡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연기에 무척 민감한 편이다. 특히 식사할 때의 담배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일본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할 때 옆자리에서 피우는 담배연기에 무척 괴로웠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담배는 니코틴, 타르를 비롯해 여러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통해 흡연자의 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담배의 문제점이다. 직접 흡연하는 사람 이외에도 주변 사람에게까지 간접흡연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최근 담배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 흡연하는 사람 못지 않게 간접흡연자도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므로써 폐등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호품인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흡연자에게도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지만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공공 건물에서도 기차나 비행기의 흡연석 처럼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도 흡연석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회사 등의 공공건물의 흡연실에는 환기팬을 설치해 쾌적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흡연자도 비 흡연자도 모두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닐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서투른 글솜씨지만 조금 적어 보았다.